



지금 한 생애 알아놓으면 세세생생에 꽃이 필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2남): 제가 공부를 해나가다 보니 직장도 뭐, 특별히 목표를 세워서 출세를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마저도 자연스럽게 낫고, 또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어떻게 되어 한다는 그런 욕심도 '그냥 자기 업대로 인연 따라 살겠지.' 하고 낫고 와이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낫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왔느냐 하면, 제가 환자여서 지금 현재도 불편하면서도 환자라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그냥 평소 생활을 하다가 오르막 길이든지 내리막 길이든지, 현실에 부닥쳐서야 '아 참, 내가 아프지.' 하고 그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도리인지 지금도 의의나 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병도 그렇고 또, 직장 일에도, 무관심한 건 아니었지만 주어진 여건을 소화만 해 나갔는데도, 역시 또 생각보다 빠른 진급을 했습니다. 급년 7월에요.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안달을 해도 잘 안되더니 그냥 맡겨 버리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되더군요. 이것이 맡기는 도리인지, 그래서 진급도 이렇게 해서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환자라는 생각과 자기를 비하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넘어지면 어떡하나, 차를 못 타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염려하는 버릇이 없어져서 경우에 따라서 자가용이 없으면 좌석버스도 타고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불편하면서도.

요즘 많이 생각하는 의문이 뭐냐 하면, 도대체 등산하다 넘어진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어디 눈에 보이는 상처 부위가 있어서 진행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다리가 가늘어지는 것인지, 그렇다면 이것은 현재의 어떤 업이 아니라 전생에서 제가 무슨 업을 지어 가지고 온 모양인데, 이게 무슨 업으로 내가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또 이렇게 넘어 나가다 보면 그 업도 금생에 녹여져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참 궁금해서 큰스님께 여쭙 보고자 나왔습니다.

큰스님: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부부 사이에서 몸 하나를 받아서 내 영혼과 인연의 줄을 다 끌고 한데 합쳐 집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 됩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인연들이 전부 내 배낭 속에 있습니다. 지금 모두가, 그러니 과거는 없어요. 그래 배낭

속에 있어 가지고 배낭 속에서 과거에 지은 업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대로. 몸으로 반영되기도 하고, 괴로움으로 반영되기도 하고, 애교로 반영되기도 하고, 유전성으로도 되고 영계성으로도 되고 아주 뭐 복잡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녹이려면 모든 것에, 아까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무조건 이유를 붙이지 마세요. 거기서 나온 거니까 무조건 거기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맡겨 놓고, 거기서만이 해결을 할 수 있고, 거기서만이 낫게 할 수 있고, 낫게 해서 끌고 다니는 것도 거기서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자기 한마음 주인공에 모든 것을 맡

기고 살아가세요. 이렇치열이란 말도 있죠. 거기다 놓으면 거기서 해결이 나는 겁니다. 모든 게 녹아지고요. 그것이, 즉 말하자면 인과로 인한 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모두 관습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게. 업이 달리 생기는 게 아닙니다. 모두 살아온 관습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도 세포 하나하나에 중생들이 들어 있으면서 악이면 악으로 갚으려고 하고, 선이면 선으로 갚으려고 두서없이 나오는데 그 나오는 중생들의 의식은 좋고 나쁜 걸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스려야 된단 얘깁니다. '너와 내가 들어 아니다. 모든 것은 한마음이다. 한마음 주인공만이 해

결할 수 있다.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서 해결을 한다.' 이러면 원수였던 마음이 그냥 가말게 잊혀지고 그냥 하나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뭐 특별히 우뚝 솟는 거는 없다 하지만 차차차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이지 밝은 세상을 사시게 됩니다. 아까도 질문할 때에 나의 과거를 물었지만, 내가 이렇게 대답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모르는 걸 배워서 모릅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어저께가 따로 있고 오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그대로 그대로 돌아갑니다.

질문자(3남):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그 동안 큰스님께서 늘 가르쳐 주신 대로 모든 걸 맡겨 가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경계마다 모든 걸 주인공한테 맡겨 가면서 맡긴다는 사이 없이 생활을 해 오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의정나는 것은 그동안 건건이 나타나는 경계를 주인공에 맡겨 가면서 그것이 또 관(觀)한다는 개념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늘 하면서 감사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요즘 제 생활 속에 갑자기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밀려오니까 저의 힘이 부족해서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가슴속에 큰 응어리가 저서 풀어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따지고 보면 하나하나 낱알이 오는 그런 경계인 줄은 압니다만, 한꺼번에 밀려왔을 때 그 낱알의 문제가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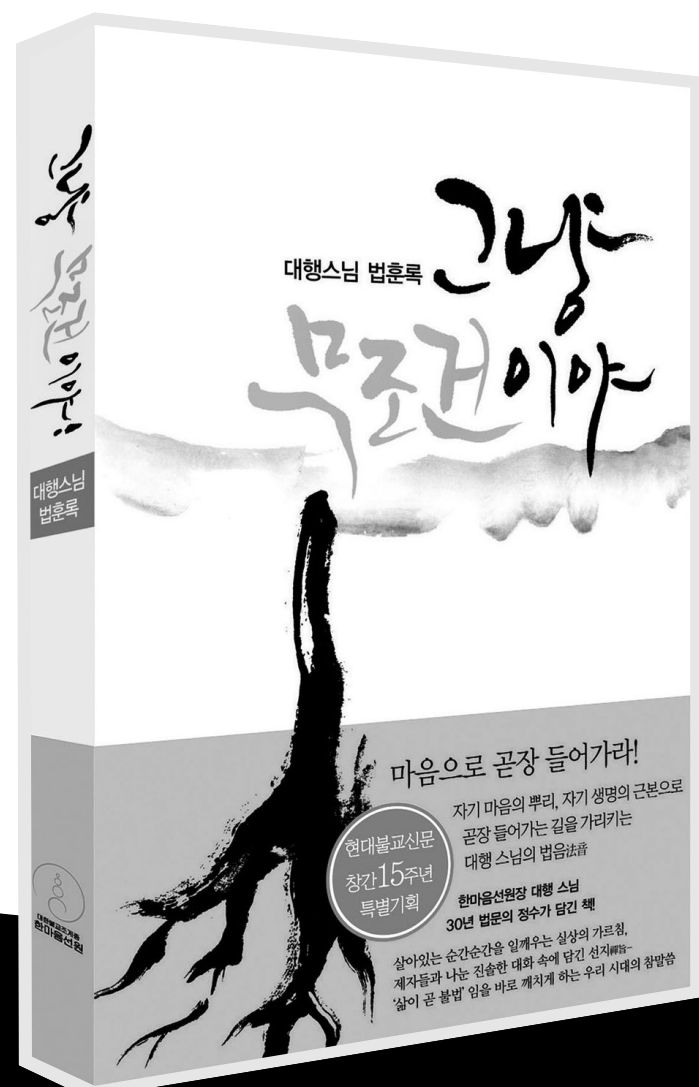
큰스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하나 실험을 하고 체험을 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가다가 보면, 몰아서 닦는 것도 닦이 공부하는 데에 테스트해 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작은 거나 큰 거나 엄청 많은 거나 둘이 아닙니다. 하나가 풀어지면 다 풀어지게 됩니다. 맥도 그런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여러 개가 나타나든, 용도에 따라서 그냥 쪽 오든, 하나가 오든 쪽그만 게 오든 그것은 모두가 똑같습니다. 작용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을 하고 어이구, 여기도 오고 여기도 오고 여기도 오고 이러는구나. 팔죽 속에서 팔죽이 끊어서 팔죽 방울이 온갖 군데에서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자(3남): 하나죠?
큰스님: 네, 하나죠. 그러니까 다 끊었으면 불만 끄면 금방 아답니까? 허허허. 그런데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나까? 짐승 몸을 가졌을 때는 모두가 잡아먹히고 잡아먹고 이렇게 살던 습이 있었지만, 인간으로 돼 가지는 정신을 뺏기느냐 뺏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정신을요, 지금은 정신을 뺏어 먹는 시대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알아야 안 뺏기고, 알아야 모두 풀리죠.

엇그저께도 차를 타고 가면서 보니까 찾길 이, 가는 길이 있으면 오는 길이 있습니다. 가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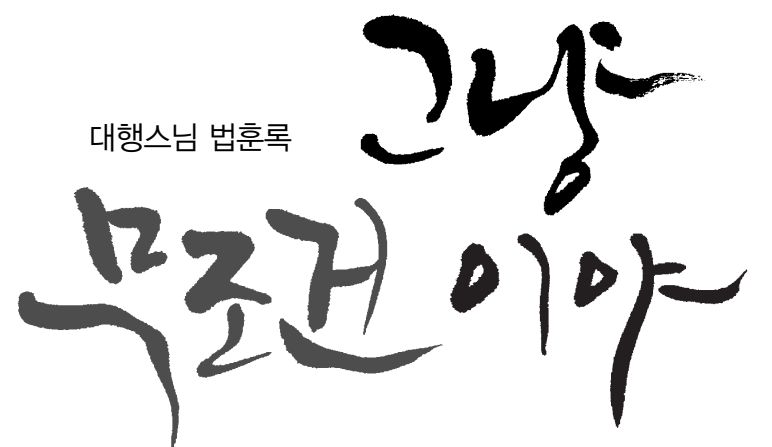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